

경제위기의 현실대안 제시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펴낸 정운찬 교수

올 한해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말을 꼽으라면 단연 IMF와 '경제'다. 정운찬 교수(52)는 유례없는 경제불황이 우리에게 준 것도 있다며 '일반인들의 경제적 사고'를 든다. 경제관련 책들이 예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고, 많은 중수가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정운찬 교수의 책도 올해 많이 팔린 경제 관련서 가운데 하나다.



“경제불황 덕분에 이제 일반인들도 경제기사를 읽고, 경제사회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경제야말로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니 없이 낙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의 환난은 예견돼 왔습니다.”

정교수는 60년 이후 초고속 성장과 정 안에 이미 경제제도 왜곡이 예비되었다고 한다. 먼저 '죽어야' 희생할

수 있다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은 이런 생각을 대변한다. 급속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행한 '인위적 자원배분'과 '경쟁제한정책'은 기업활동의 평가를 수익성 같은 내적 기준이 아닌 규모 등의 외적 기준에 의존하게 했다.

“당연히 시장형성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이나 재벌개혁이 더더 경제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과학자들의 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 이같은 분석은 철저히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진공 속의 경제학으로는 대안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 정교수의 생각인데, 그러기 위해서 학자들이 경제학을 대중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동안 우리는 거품에 싸여 미래를 터무

없이 허투르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라도 경제학이 대중화되고, 경제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품에 싸여 미래를 터무

없이 허투르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라도 경제학이 대중화되고, 경제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 이현주 기자

독설과 풍자로 언론 질타

《판지일보》 펴낸 김어준씨

“인터넷이 매체로서 갖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크로폴리스 같은 곳이지요.”

인터넷은 그동안 기술적인 면만 부각돼 왔다. 하지만 김어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정도로 제 생각이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비틀거리는 현실도 한몫 했을 겁니다.”

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비틀거리는 현실도 한몫 했을 겁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선불리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판지일보는 이제까지 '잘 못했다' 거나

“정정하겠다”는 말을 한번도 신지 않았다. 판지일보를 단행본으로 만들자는 출판사 제의는 20여군데에서 들어왔지만 자신의 이런 생각을 수용한 출판사를 택했다.

“다른 곳은 제 신문의 내용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작나무는 그냥 가자고 했지요.”

책을 만들었지만 결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더이상 내지 않으려 한다. 그 이유를 '별로 재미가 없어서' 라고 간단하게 말한다. 현장감이 떨어지고, 입체감도 덜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어준씨는 책 《판지일보》가 인터넷은 문화조류이며, 새롭게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정도로 제 생각이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언

“정정하겠다”는 말을 한번도 신지 않았다. 판지일보를 단행본으로 만들자는 출판사 제의는 20여군데에서 들어왔지만 자신의 이런 생각을 수용한 출판사를 택했다.

“다른 곳은 제 신문의 내용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작나무는 그냥 가자고 했지요.”

책을 만들었지만 결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더이상 내지 않으려 한다. 그 이유를 '별로 재미가 없어서' 라고 간단하게 말한다. 현장감이 떨어지고, 입체감도 덜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어준씨는 책 《판지일보》가 인터넷은 문화조류이며, 새롭게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

— 이현주 기자



오름은 오래 기억되는 좋은 책만 만듭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20-6 (재)통일시대연구소빌딩 301호
TEL : (02)585-9122~3 · FAX : (02)584-7952

한국의교론, 오기평 저, 480쪽, 11,000원

한국민족주의의 연구

김동성 저, 412쪽, 10,000원

외교와 정치

김태현·유석진·정진영 편, 336쪽, 9,000원

현대북한의교론, 김용호 저, 448쪽, 13,000원

통일환경론, 윤정석 편, 406쪽, 12,000원

한국현대정치론II

한배호 편, 464쪽, 13,000원

한국정치동태론, 한홍수 편, 830쪽, 19,000원

이아고와 카산드라

강성학 저, 808쪽, 20,000원

현대정치학의 이해

김상준 외 공저, 390쪽, 14,000원

일본·일본학, 최상용 외 공저, 402쪽, 9,000원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340쪽, 8,000원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184쪽, 6,000원

통일사회로 가는 길

송자·이영선 편, 200쪽, 6,000원

경험을 통한 남북한관계 발전의 길

이태욱·연하청·고일동 공저, 130쪽, 6,000원

북한학, 한용원 저, 456쪽, 15,000원

공공선택론

고바야시 요시아키 저, 이호동 역, 271쪽, 9,500원

말레이시아史, 소병국 편역, 220쪽, 8,000원

북한진출 기업전략

유한수·이영선 편, 320쪽, 10,000원

일본특이론의 신화 깨기

스티븐 리드 저, 최은봉 역, 246쪽, 9,000원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박장식 외 공저, 352쪽, 12,000원

중국의 시장화와 노동정치

김영진 저, 351쪽, 11,000원

강제력과 국제조약, 한영구 저, 296쪽, 15,000원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80가지 물음

D. 비담·K. 보일 공저, 이창호 외 공역, 154쪽, 6,000원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이갑윤 저, 192쪽, 7,000원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편 320쪽, 12,000원

IMF시대에도 한국은 있다

이호철 저, 326쪽, 11,000원

민주화시대의 정부와 기업

문정인 편 320쪽, 12,000원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제1권~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제1, 2, 4, 5, 6권: 각13,000원 / 제3권: 10,000원